

# 해트트릭으로 침묵 깬 손흥민, 경기 MOM·최고 평점 10점

개막 후 공식전 8경기서 침묵...교체로 13분만에 3골 토트넘, 레스터시에 6-2 대승...팬투표 75.5% 지지 팀 셔우드 전 감독 "손흥민은 모든 감독의 꿈" 극찬도

해트트릭으로 시즌 침묵을 깬 손흥민(30·토트넘)이 경기 최우수선수(Man of the match)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레스터시와의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출전해 해트트릭을 달성, 토트넘의 6-2 대승을 이끌었다. 이번 시즌 개막 후 공식전 8경기에서 골이 없었던 손흥민은 이날 3골을 몰아치며 길었던 침묵을 단숨에 깨트렸다. 팀이 3-2로 앞선 후반 14분 교체로 나온 손흥민은 후반 28분부터 41분까지 3골을 폭발시켰다. 축구통계전문 유포에 따르면, 토트넘에서 교체로 나와 해트트릭한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다. EPL에서 개인 통산 3번째 해트트릭에 성공한 손흥민은 EPL 통산 득점 기록을 96골로 늘렸다. 이는 EPL 역대 최다 득점 35위에 해당하는

다. EPL 사무국은 경기 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팬투표 결과 75.8%의 높은 지지를 받아 경기 MOM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위(17%)인 해리 케인을 크게 앞섰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으로 과거 토트넘을 지휘했던 팀 셔우드 전 감독은 EPL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손흥민은 모든 감독의 꿈"이라고 극찬했다. 유럽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9.32점을 줬다. 로드리고 벤투쿠르가 8.9점으로 뒤를 이었다. 소파스코어도 손흥민에게 최고의 평점 9.3점을 부여했다. 현지 매체들도 엄지를 세웠다. 영국 풋볼런던은 손흥민에게 만점인 평점 10점을 부여하며 "가치를 입증했다. 레스터전 영웅"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에게 평점 9점을 주며 경기 MOM으로 선정했고, BBC도 "품은 일



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며 가장 높은 평점 9.39점을 내줬다. 지난 14일 손흥민의 벤치행을 주장하는 이

들에게 "신성모독과 같은 소리"라며 일축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 리오 퍼디난드도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기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손흥민의 이름과 함께 박수하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삶이 네게 레몬을 준다면, 해트트릭으로"를 시즌 공식전 9경기 만에 골 침묵을 깬 손흥민(30·토트넘)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말이다.

## 손흥민 "삶이 네게 레몬을 준다면...해트트릭으로"

레스터전 후반 교체 출전해 '해트트릭' 시즌 초반 힘들었지만, 실망감 사라져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라운드 홈 경기에서 3골을 터트려 소속팀인 토트넘의 6-2 대승을 견인했다. 지난 시즌 23골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막 후 공식전 8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이날도 해리 케인과 허샤를리송, 데얀 콜루엥스키가 선발로 나섰고,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손흥민이 리그 경기에서 교체로 나온 건 2021년 4월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이후 1년 5

개월 만이었다. 손흥민은 팀이 3-2로 앞선 후반 14분 히샤를리송 대신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리고 후반 28분 강력한 오른쪽 슈팅으로 시즌 마수결이 득점에 성공한 뒤 후반 39분과 후반 41분 추가골로 교체 투입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손흥민의 EPL 개인 통산 3번째 해트트릭이다. 또 축구통계전문 유포에 따르면, 토트넘 소속으로 교체 출전해 해트트릭한 선수는 손흥민이 처음이다. EPL 통산 역대 7번째다. 손흥민은 경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른손에 해트트릭한 경기구를 들고 왼손 세 손가락을 펴 채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영문으로 "삶이 네게 레몬을 준다면...해트트릭.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항상(when life gives you

lemons... score a hat-trick, love you all and thank you for the support, always)"이라고 적었다. '삶이 네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라는 서양 격언을 인용한 것으로, 인생에 시련이 와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 내라는 의미다. 손흥민은 또 득점 장면 영상을 올리며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팀을 돕고 싶었고,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운이 좋게도 3번의 기회가 찾아왔고, 골이 따라왔다"고 했다. 앞서 현지 중계진과의 인터뷰에선 "시즌 초반 힘든 시기를 보냈다. 좌절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 달라진 팀의 경기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팀이 잘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오늘 매우 좋은 승리를 거뒀고, 실망감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또 "(득점 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정말 행복했다"며 "축구는 가끔 미친 것 같다. 어떤 팬 공이 골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3번이나 들어갔다"고 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합류한다. 벤투호는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과 평가전을 치른다. 손흥민은 "A매치 휴식이 전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 다행이다"며 "이번 시즌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EPL은 마지막 1분에도 경기 결과가 뒤집힌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 구례군, 제14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 씨름대회 개최

3년만에 유관중 대회 개최 TV 중계·유튜브 실시간 시청

제14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가 3년 만에 유관중으로 개최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구례군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구례전국 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경기는 대학부 개인전 및 단체전, 여자부 개인전 및 천하장사전, 학생부개인전이 치러지며 44개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유관중 대회로 경기장 관람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출입자 전원이 KF94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첫날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MBC SPORTS PLUS를 통해 중계되며, 유튜브 대한씨름협회\_더씨름Live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방송시간은 23일, 24일 13시이며, 25일은 14시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여자씨름의 메카인 우리 군에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여자씨름발상지로서 2009년부터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여 14년째 이어오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조코비치가 '은퇴' 페더리에게... "당신의 경력, 탁월함 표본"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은퇴를 선언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리(41·스위스)를 향해 "당신의 경력이 탁월함의 표본"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조코비치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우리가 이 스포

츠에서 함께 나눈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놀라운 순간과 대결을 돌아봐야 한다"며 "오늘은 힘든 날"이라고 페더리의 은퇴 소식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코비치는 2000년대 페더리, 라파엘 나달(36·스페인)과 함께 남자 테니스 '빅3' 구도를

형성했다. 메이저대회 남자 단식 우승 횟수 순위에서 나달이 22회로 1위, 조코비치는 21회로 2위를 달리고 있다. 페더리는 20회로 3위다. 조코비치는 "성실함과 침착함이 이끈 페더리 당신의 경력은 탁월하다는 의미의 기준을 설정했다"며 "수 년 동안 당신과 코트 안팎에서 알아온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뉴시스



## 전남-서울, 스포츠교류를 통해 하나되다

서울시민체육대회(16일부터 18일까지) 참가...3일간 생활체육 교류 국학기공·수영·농구·축구 등 4종목 60명 참가...문화탐방 및 친선경기 등

전남도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3년 만에 뜨거운 형태의 정을 나눈다. 전라남도도와 전라남도체육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2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초청받아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를 행사로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전라남도 우호교류단은 최기동 전남체육회 회장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여 국학기공, 수영, 농구, 축구 등 4개 종목 총 60명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16일에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환영식과 문화탐방을 시작으로, 환영만찬 행사에 참석하며, 행사에는 최기동 체육회장직무대행, 박원화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 전남도 김기평 스포츠산업과장,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17일에는 잠실실내체육관

에서 개최되는 2022 서울시민체육대회 개최식 참석과 더불어 각 종목별로 서울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교류 마지막 날 18일에는 서울특별시 일원에서의 문화탐방을 끝으로 3일간 각별해졌던 서별의 정을 나눴다. 최기동 회장직무대행은 "3년만에 개최된 이번 교류전을 통해 다시 한 번 전남-서울의 돈독한 우정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교류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뿐만 아니라 선진형 생활체육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서울 교류는 2005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번 교류전에 이어 내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에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